

코오롱, 전자재료용 에폭시수지 증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전자재료용 특수 에폭시수지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175억원을 투자해 김천공장을 증설한다고 11월23일 발표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대표 배영호)는 특수 에폭시수지(Epoxy Resin) 생산능력을 3만8000톤 증설해 2011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증설을 마무리하면 특수 에폭시수지 생산능력이 5만톤으로 확대된다.

전자재료용 에폭시수지는 주로 반도체와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고기능 열경화성수지로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약 700억원을 투자해 중국 광저우(廣州)에 전자재료 공장도 건설할 계획이다.

2012년 완공할 예정으로 LED(Light Emmiting Diode)용 도광판, LCD 코팅용 재료인 오버코트, 고밀도·고집적 회로기판 제조에 사용되는 화상형성재료(DFR) 등을 생산한다.

코오롱은 중국공장에서도 2012년 600억원, 2013년 10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0/12/6〉